

세계정당연대의 원상복합 운동프로젝트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로 관통
- (명동출발)IC 영수순 10분내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베이징올림픽 D-30

-광주·전남 출신 선수는?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이용대·김찬미 '金소식' 기대

〈화순실고 쥘〉

〈전남여고 쥘〉

오는 8월 8일 오후 8시 8분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 열전에 돌입할 제 29회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만한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광주에서는 육상 세단뛰기 김덕현(광주시청)을 비롯해 6종목 7명, 전남은 화순실업고등학교 출신 배드민턴 이용대(삼성전기) 등 10종목 18명으로 모두 25명이 고향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각 종목에서 투혼을 펼치게 된다.

특히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큰 기대주는 배드민턴의 화순실업고등학교 출신 이용대(삼성전기), 체조의 영광고 출신 김대은(전남도청)과 김승일(전남도청), 태권도 윤희성(웅인대·영광출신), 김주영(조선대·해남출신)이 베이징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광주·전남스타들로 꼽힌다. 또 육상에서 조선대 출신 박태경이 110m 허들, 김덕현(광주시청)이 세단뛰기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이용대는 초·고 시절부터 '제2의 박수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종목인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에서 적어도 1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박태경과 김덕현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맞수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들이 과연 세계무대에서 한국 육상의 한을 풀어줄 것인지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덕현은 최근 기록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만 성공한다면 육상 종목 사상 첫 메달이 꿈만은 아니다.

김대은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 은메달을 차



김찬미

이용대

김덕현

광주 7명·전남 18명 총 25명 참가
체조 김대은·태권도 윤희성 메달권
최준상 20년만에 '마장마술' 출전

금 총성을 울릴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김찬미의 전남여고 선배인 이보나(우리은행)도 사격 더블트랩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07년 사격계가 발굴한 보물로 여겨지는 김찬미는 지난해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일구며 차세대 기대주로 각광받아 여자 공기소총에서 금 총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 레슬링에 정영호(국군체육부대·조선대)와 김효섭(대한주택공사·해남)이 각각 자유형 66kg과 자유형 55kg급에서 메달을 노리고, 펜싱에서는 김승국(화성시청·영암)이 에페 단체에 출전한다. 광주 출신 최준상(삼성전자 승마단)은 20년 만에 마장마술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승마계에 이름을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수영 유정남(보성군청)이 접영 200m, 정다래(여·부영여고)가 평영 200m, 이지은(여·광양)이 자유형 400m에 출전하며 유도 공자영(여·영암)은 63kg급 이하에서 메달을 노린다.

근대 5종 이춘현(대한주택공사·광주체육)도 5종에 출전, 탈 아시아를 노리며 메달에 도전하고, 여자하키 박정숙(목포시청)·김은실(목포시청)이 단체전 메달획득에 힘을 보탠다. 핸드볼에서는 오현섭(무안)·유민호(한체대·무안)·김은아(여·백산건설·무안)가 각각 남녀 단체전에서 메달을 향한 투혼을 불사른다.

시범종목이긴 하지만 우수의 장우홍은 지난 2005년 제 8회 세계우수선수권대회 태권도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통할 실력을 갖춘데다 그동안 노력미가 더해져 메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든 국가기관 올림픽 체제 전환 각종 범죄·국제 매춘 단속에 총력

지난달 27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집단 근무지 겸 속소)에서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주석은 회의를 주재한 뒤 "올림픽 준비는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올림픽 개막 D-30을 계기로 모든 국가기관이 올림픽 체제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셈이다.

우선 올림픽 주경기장인 나오차오(鳥巢)가 지난달 28일 성대한 준공식을 했다. 올림픽 조직과 관계자는 "이로써 37개 올림픽 경기장이 선수단을 맞아 체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8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올림픽위원회 임원과 선수단, 취재진을 위한 서우두(首都) 국제공항 올림픽 전용통로가 개통됐다. 이 통로를 통하면 10분 안에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으며 15분 안에 출국 심사와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취재진들을 위한 메인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도 같은 날 정식 개관했다. 공안도 이날부터 한 달간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동네마다 방범 초소가 증가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안전 교육도 실시됐다. 공무용 차량은 70%가 많이 뒤였다. 차량의 베이징 진입도 엄격히 통제됐다. 호텔, 식당 등 외국인들이 이용할 만한 모든 장소에 대한 보안, 위생 검사가 시작됐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치밀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골칫거리들'도 서서히 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매춘조직의 등장이다.

광명 신화(新華)통신 산하 '국제선구도보'는 최근 '당국이 올림픽 기간 국제 매춘 조직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안도 가라오게, 안마시술소 등 매매춘이 이뤄질 수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국내 매춘조직 단속과 국제 매춘활동도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효과는 회의적이다. 중국 범죄전문가들은 "국제 매춘조직이 성 노동자들을 관광객 혹은 예술단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시켜 입국시킨 뒤 현지 브로커들과 손잡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매매춘 장소도 일반 가정집처럼 좀처럼 적발되기 어려운 곳이 선택될 공산이 크다.

성매매 범죄 전문가인 류원연(劉文彦) 변호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성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했을 만큼 성매매는 근절하기 어렵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도덕관에 입각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매매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중국은 실제로 이전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물러난 성 노동자들의 생업 터전이 되어 왔다. 이들 외국인 매춘조직은 국내 범죄조직과 은밀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국제 매춘조직이 중국 내 조직과 손잡고 은밀하게 손님을 끌어들이면 이를 막아낼 뾰족한 대안이 없다.

올림픽 개막 한 달을 앞둔 요즘 중국의 관련 부서 관리들이 밥값을 설치는 이유다. /jkrccm@paran.com

■ 윤곽 드러난 박성화호

김동진·김정우 와일드 카드로 베이징 간다

사상 첫 올림픽축구 메달 꿈을 꾸고 있는 박성화호가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담금질 중이다.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예비 태극전사들은 모두 26명이지만 2008 베이징올림픽 최종 엔트리는 18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최종엔트리 등록 마감일은 23일이다.

◇윤곽 드러난 박성화호 승선 명단 = 박성화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전술을 구사한다. 18명 최종엔트리 중 두 명은 와일드카드로 김동진과 미드필더 김정우(성남)가 발탁됐다.

일단 박 감독이 세 명을 데려갈 최전방 공격수에는 부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박주영(서울)과 이근호(대구)가 한 자리씩을 쟁한다. 서동현, 신영록(이상 수원), 양동현(울산)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김승용(광주)과 이정용(서울)은 좌우 미드필더로 베이징행이 유력하다. 중앙에는 와일드카드 김정우 외에 기성용



8일 파주NFC에서 올림픽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런닝을 하며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 눈도장을 찍었다. 박성화 감독이 20세 이하 청소년대표팀 사령탑 시절부터 중용해온 백지훈(수원)도 선발 가능성이 높다.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수비는 A대표 경험도 있는 김진규(서울)-강민수(전북) 조합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왼쪽 풀백은 와일드카드 김동진, 오른쪽 풀백은 김형수(부산)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는 A대표팀에서

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 정성룡(성남)이 확정적이다.

◇비늘 구멍 통과 의 관건은 '멀티플레이' = 멀티플레이는 완성한 박 감독이 마지막으로 고민 중인 자리는 사실상 2-3 곳 정도 밖에 안 된다. 최종엔트리가 18명 밖에 되지 않으니 여러 포지션을 맡길 수 있는 선수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와일드카드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김

동진은 왼쪽 풀백은 물론 중앙수비까지 가능하며, 김정우는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 박 감독이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구분한 이근호, 김승용은 상황에 따라 서로 위치를 바꿔 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울 수 있는 이유찬(전북)이나 좌우 풀백 모두 소화 가능한 최철순(전북) 등은 경쟁력이 충분하다.

“어떤 감독도 100% 승리 장담할 수 없어”

히딩크, 허정무 감독과 오찬

“대표팀 감독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감독도 100%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제2호 히딩크 드림필드 '준공식 참석차 한국을 찾은 거스 히딩크 감독은 8일 낮 서울 시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허정무 감독과 함께 오찬을 하기에 앞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둔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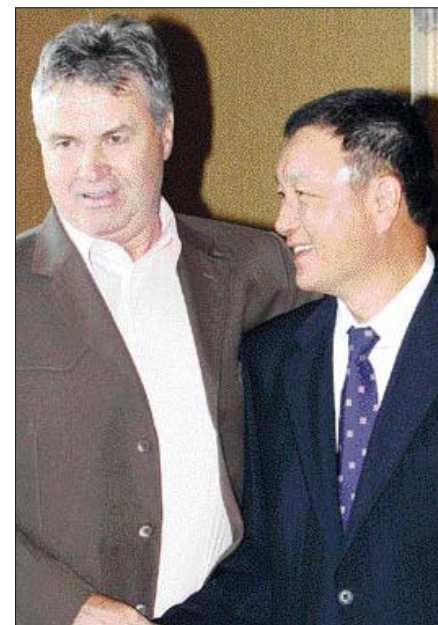
히딩크 감독은 “모든 감독이 많은 전력을 세우고 트레이닝, 미팅을 수도 없이 갖지만 승부 결과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월드컵 3차예선 부진으로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허정무호에 격려를 보냈다.

그는 이어 “잉글랜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보더라도 실력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도 계속 바뀌고 있고 랭킹에도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팀을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올려 놓은 히딩크 감독은 또 쉽지 않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친선 경기를 추진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이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허 감독은 “히딩크 감독은 존경하는 분이요 환영한다”면서 “그는 게임을 읽는 시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감독이다. 대표팀에 대해 조언을 해 준다면 저로서는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히딩크(왼쪽) 러시아축구대표팀 감독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허정무 감독 등 한국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오찬을 하기에 앞서 허정무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정몽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2002 한일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던 정해성 코치, 김현태 골키퍼 코치도 나왔다. 히딩크 감독은 허 감독과 정 코치 등을 보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신화를 이뤘을 당시 히딩크호에 합류했던 공격수 안정환(부산)도 함께 해 서로 대화를 나눴고 히딩크 감독 여자친구 엘리자베스도 참석했다.